

소통의 정치 펼칠 것

“소통을 통한 화합과 통합으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시작한 신영대 위원장이 이끄는 군산지역위원회가 어느덧 두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의 역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소통의 리더십으로 유명한 조선 제22대 왕을 지낸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총 66차례에 걸쳐 능행에 나섰다 한다. 이는 단순한 임금 행차 목적 외에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을 살피며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진 사연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달 동안의 시간, 더 나아가서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매일 소통의 능행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신영대 위원장을 찾아 그의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늦었지만 먼저 군산지역위원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축하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더구나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돼 공석이었던 지역위원장직을 맡게 돼 지역위원회를 정상화 시키야겠다는 맘 하나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다들스러운 것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4명, 시의원 15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원들과 조직을 잘 정비해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 정상화 시키겠다는 맘 하나로 열심히 뛰는 중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강소기업 등 지역 유치가 우선 참여정부 행정관 경험은 소중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하고 서민 이익 부합하는 정책 펴고파

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상황이라 그 결과 국가정책이 단순한 대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왜곡되거나, 대통령의 별 뜻 없는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진중한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발언으로 왜곡되기도 해 소통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Q. 본 기자도 인연이 깊는데 가까이에서 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정관으로서 제가 기안한 문서도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직급을 떠나 직접 소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언제가 전주에 방문하셨을 때 밤에 비서실 직원을 맞이 밖에 나가 삼겹살에 소주 몇 잔 하고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 “나도 삼겹살 좋아하는 거 알면서 자네들끼리만 먹고 다닌다 이거지”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격식 따지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편하게 대해 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Q. 경기도교육청 정책비서관으로도 활동하셨

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 중앙정치권에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정치를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교육 분야 특히 혁신 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비서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건 행운이었다는 생각입니다.

9시 등교 정책의 정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마을교육공동체’란 이름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생활정치가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학교와 시민사회를 묶어내고, 학교와 교육으로 지역이 발전하며, 지역 인재들이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Q. 지역위원장이지만 내년 총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은 무엇인지요?

A. ‘청년이 중심이 되어 군산을 바꾸자’를 모토로 청년운동을 하던 중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근태 선배님의 권유로 1986년도 제도권 정치에 몸담게 됐고 이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시민 주권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조직기획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통의 정치입니다. 일단 당선만 되고 보지는 식의 정치인이 아닌 언제나 지역민 가까이에서 안부를 주고받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게 제 꿈으로서 자본과 언론,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발언, 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보고 싶습니다.

Q.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지로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중앙 무대의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교육감 비서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 경력을 거치면서도 저와 저의 가족들은 타지로 주소지를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 군산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깊고 애착심이 크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명절을 앞두고도 웃을 수 없는 전통시장의 상인들, 20년이 넘도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가족을 걱정하는 근로자들, 자고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